

시론



김 일 태
전남대 교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의 시간이 다. 집권당은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미 본선 경선에 돌입하여 과반수 획득으로 당의 대선후보를 10월 10일 결정한다. 제1야당은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경선 버스에 탑승하여 1~2차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좁혀 최종 대선후보를 11월 5일 선출하는 스케줄이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그리고 소위 제3지대 대선 후보들도 결연하게 집권의지를 속속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정치적 결단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후보들의 마음일 것이다. 모든 후보들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국가와 국민이 버틸 수 있도록 국력을 배양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과감하고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시기이다.

정치가 언어의 매력을 담고 있는 것만 여야 가릴 것 없이 막말과 네거티브, 흑색선전, 각종 의혹제기를 넘어서 고소·고발로 이어져 가관이

다.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야권의 소위 ‘임차인’ 경선 예비후보는 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대선 경선 후보직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재빨리 의원회관 방을 빼고 정기국회 본회의도 불참하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야권의 유력 경선후보도 가족비리 의혹에 덧붙여 검찰 고발 사주 의혹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형상이다. 한편 여권의 유력 경선후보는 당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치고 의원회관 방을 정리하는 모양새이다. 과거 독재시대에겐 의원직에서 제명당하는 것이 독재 저항과 민주회복의 길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도덕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는 행동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시장에서 유권자들의 대표인 대리인을 선출적 정치인으로 선출하게 된다. 특히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지역구 의정 보고회에 참석하거나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감

지도자의 길

시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선출직 정치인들이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법률에 정해진 사퇴 기한에 앞서서 선출직을 사퇴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는 선출직 사퇴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다.

어느 시대나 국가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가 위태롭거나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여왔다. 난세의 춘추전국시대 맹자는 ‘진심장구(盡心章句) 하’편에서 “맹자왈(孟子曰) 제후지보삼(諸侯之寶三)이니 토지(土地)와 인민(人民)과 정사(政事)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백성의 삶이 피폐하고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도 지도자들이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영토, 백성, 그리고 올바른 정치이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정략론)했고, “로마 시민이 어떤 공직에 앉거나 어떤 영광을 누리거나 가난이 불편한 적은 전혀 없었다”(피렌체사)는 청렴으로 로마가 융성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로마인 이야기’로 알

려져 있는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문예춘추(文藝春秋)의 기고문(2007년 6월)에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 군대와 전쟁하는 동안 로마의 지도층이 몸소 최전방에서 나아가 싸워서 한니발에게 로마 집정관(최고 통치자) 10명이 죽음을 당했지만 병역 의무가 없는 17세 미만이나 노예, 하층민을 일절 징용하지 않았고 지도층이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는 소임을 다했던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로마 지도자들의 희생에 의한 올바른 정치로 영토의 보전과 백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물론 지도층들은 15만 킬로미터 정도에 달하는 도로 건설과 보수 유지의 공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의 공동체 사회 환원을 몸소 실천하게 된 것이다.

이제 모든 후보들은 자격과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마키아벨리의 지적처럼 “유권자(민중)은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정략론)”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칼럼



박 원 국
목포소방서장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을 찾지는 못하지만, 시골집 가마솥에 군복을 때듯이 휴대전화의 온도가 높아짐을 느끼며 가족과 친지들에게 안부인사를 전하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따뜻한 웃음만 있어야 할 한가위에도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택근무, 자녀들의 비대면 원격수업 등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게 되면서 주택 안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전남 도내 5년 추척 연휴 기간 화재 건수는 150건으로 연평균 30건 정도가 발생했고 6명의 사상자와 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33건으로 22%를 차지하였으며 임야화재, 자

동차화재가 그 뒤를 이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79건(52.6%), 전기적 요인이 35건(23.3%) 등 화재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택 화재는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기에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택을 기를었으면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핀을 뽑고 소화 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기구이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내장된 배터리로 경보음을 작동시키는 장치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설치에 따른 행정적 처벌사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법령에 관해 모르고 있어 자신의 집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지만, 소화기가 공간을 차지하고 화재경보기가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

하는 연기 등으로 경보음이 자주 울려 시끄럽고 별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감지기를 떼어놓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전남 도내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에어컨 실외기, 콘센트 등 많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관계자가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을 잘 막아낸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3~4만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근처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예로부터 집은 가장 좋은 안식처 중 하나로 여겨져왔고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안전하지 않은 집에는 웃음과 행복이 피어날 수 있을까?

居安思危(거안사위)라는 말이 있다. 편안하게 있을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의미이다. 화마가 집을 휩쓸고 소중한 가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는 쓸모가 없다. 그렇기에 평온한 상태인 지금이 위험에 대비하기 더없이 좋을 때이다.

2010년부터 소방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 홀로 거주하는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등 화재 안전 취약가구를 정해 제도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안전사각 지역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소방 정보에 어두운 일반시민 고령자 가정은 외의의 사각지역이 될 수 있다. 이 글을 보는 당사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 고향의 집마다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선물하자. 명절에는 들뜬 분위기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교통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불의의 사고가 없는 온정을 나누는 평온한 연휴를 기대한다.

이번 명절도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과 친척의 웃음과 행복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하여 조심스레 권해본다.

社說

전남 농촌 보육의 질 개선 정책 전환 서둘러라

전남에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는 원인이기도 해서 우려가 크다. 도시와는 다르게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면(面) 단위가 많은 만큼 어린이집 폐업은 지역을 떠나는 ‘보육난민’을 만드는 것이다.

도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난 5월말 기준 1천544곳으로 감소세다. 2017년 1천241곳, 2018년 1천205곳, 2019년 1천147곳, 2020년 1천84곳을 기록하는 등 4년간 187곳이 사라졌다. 전남 함께출산율은 1.15명,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인했다. 올 상반기 0~6세 유아는 3만9천570명으로 매년 2천~4천명씩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보육이 늘면서 심화됐다. 미처 10명을 채우기도 힘들어 정부의 원장 및 교사 인건비 지원마저 어려운 현실이다.

어린이집의 줄어드는 폐원에 전남도가 국·도비 등 각종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

라고 하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십 수년 간 계속된 출생률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은 어쩔 수 없는 국가 사회적 현상이다. 가히 불가항력이다. 따라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면서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인 것이다. 돌봄의 대상 수가 줄었는데도 보육의 질이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체계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중장기적 시점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갖춰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다. 혹여 관련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성이 낮다면 즉각 개선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전남을 비롯한 농촌은 저출생과 팬데믹의 이중적 위기를 맞았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악순환의 연속일테고 지역공동체는 결국에 무너지고 만다.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조선대도 의대 지역전형 전북 확대, 논란 키운 꼴

조선대가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범위를 2022학년도에는 전북까지 확대해 정원 129명 중 38%인 49명을 뽑는다. 2023학년도엔 53%로 늘린다. 이미 전북을 포함해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125명 중 41%인 51명을 선발하고, 2023학년도 비율은 61%에 이른다.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북 학생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며 못마땅해한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선대는 우수한 인재들을 폭넓게 구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면서 광주·전남 대입 수험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북대가 범위를 전북으로만 국한한 것을 염두에 둔 설명으로 풀이된다. 전북대는 2022학년도 정원 142명 중 53%인 75명이 지역전형이다.

같은 호남권역에서 광주·전남 수험생들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전북대의 태도는 여전하다. 올 상반기 광주시교육청은 전북대를 방문해 광주·전남까지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말이라도 변화가 없다. 전남대를 찾아가서는 지역인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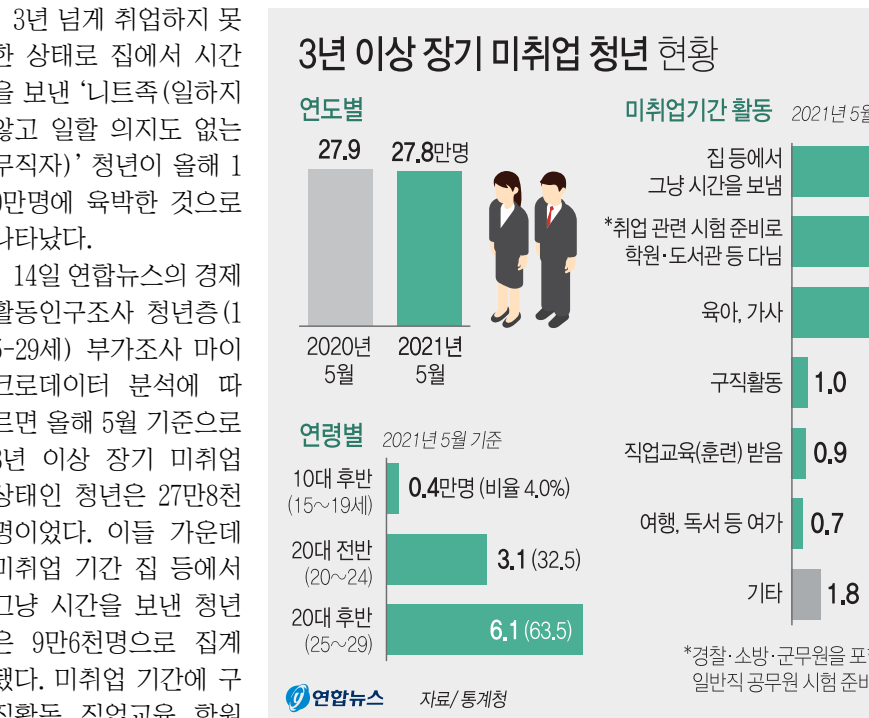
형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한 데 대해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전북대가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전남대와 조선대 역시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으로 한정해야 한다. 물론 학생 자원이 매년 감소세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일정 부분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 출신 인재를 보다 다양하게 발굴해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 안에서 개업의 등으로 의료활동에 종사한다면 충분히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재차 확산될 조짐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주·전남·북 대학은 호남권 범위내에서 학적으로 지역인재전형 지역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가’지 전북대만 바라봐서야 되겠는가. 전남대와 조선대가 지역 학생들의 몫이 줄어들게 뻔한 의학 계열 지역전형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3년 넘게 취업 못한 청년 9.6만명…36% 늘었다



이는 1년 전(7만1천명)과 비교해 2만5천명(35.8%) 늘어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6만2천명으로 1년 전(4만7천명)보다 1만5천명 늘었다. 여자는 1년 전(2만4천명)보다 1만1천명 증가한 3만5천명(반올림 과정에서 수치 변동)으로 집계됐다. 장기 니트족 가운데 남자가 여자의 1.8배에 달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29세)이 6만1천명으로 63.5%를 차지했다. 교육 정도로 보면 고졸자가 7만5천명(77.5%)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현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 역 특 집 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650-2016
정 치 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 고 국 650-2072	광 고국 650-2016
경 제 부 650-2050	사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 회 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 획 사 회 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 제 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독자 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안전한 성묘 위한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

거안사위(居安思危)란 고사성어가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오는 말로 평안할 때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전에 이만큼 어울리는 말이 어디 있을까.

근래 아침저녁 제법 쌀쌀해진 공기를 마시고 있노라면 어느덧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뜬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추석 전에 조상을 살피고 기리기 위한 성묘(省墓)라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하지만 이와 함께 성묘 시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1만6천989건의 벌 쏘임 사고로 사망 25명, 부상 4천947

명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주로 추석 전부터 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사고 위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작은 꿀벌보다는 몸집이 큰 말벌에 쏘였을 때 위험한데, 말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종인 장수말벌에 쏘이게 되면 사람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

장수말벌은 낮은 야산 기슭이나 저지대 삼림에 동지를 틀고 서식하고 3.5cm에서 성인 손가락 크기인 5cm까지 자랄 수 있다. 몸집이 큰 만큼 성질이 포악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마주치게 되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어 추석 성묘 때 발생하는 벌 쏘임 사망 사고의 대부분 원인이 바로 장수말벌이다. 그렇다면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성묘 전에는 나무 또는 땅 밑에 벌의 서식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나무나 풀이 자라 살피기 어려울 때는 적당히 떨어진 곳에 흙을 뿌려 주변에 벌이 서식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말벌은 검은색 털이 있는 머리를 주로 공격하고,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 색에 굉장히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로 반드시 넓은 모자와 밝은 색 계열의 긴 옷을 걸치고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말벌의 주식은 나무 수액, 과일, 단 향이 나는 벌꿀이므로 비슷한 향이 나는 향수, 화장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발효성 음료나 탄산음료는 섭취를 자제하

고 성묘 상에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벌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옆드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싸 쥐면서 안전한 곳으로 20~30m 이상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혹시 말벌에 쏘였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문 응급처치 및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며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로 통증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자식 또는 후손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뵙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풍습이다. 이 오랜 풍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속에 ‘안전’ 의식 또한 내재되어야 할 것이다.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의미를 되새겨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김석순·동부소방서 119재난대응단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